

韓國漢字音의 一音節化 경향에 대하여

- 1·2等韻을 중심으로 -

李京哲*
kanzi22@empas.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5. [∅·u+a·ʌ·a·e+i]구조인 韻 |
| 2. AC 1·2等韻의 體系 | 6. [∅·u+ə+i]구조인 韻 |
| 3. [∅·u+a·ʌ·a·e+∅]구조인 韻 | 7. SK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 |
| 4. [∅+a·ʌ·a+u]구조인 韻 | 8. 마치며 |

主題語: 한국한자음(Sino-Korean), 1음절(One Syllable), 모음조화(Vowel Harmony), 모음체계(Vowel Structure), 음절구조(Syllable Structure)

1. 들어가며

외국어를 자국어로 受容할 경우에는 양국어의 音韻體系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音韻上의 변화, 즉 音素의 削除, 다른 音素으로의 代替, 새로운 音素의 탄생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어를 수용하여 韓國漢字音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대의 韓國漢字音은 15세기 傳承字音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15세기 傳承字音 역시 그 이전에 전승되던 字音을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中古音의 音韻體系는 당시의 韓國語의 音韻體系와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 漢字音을 韓國語로 수용할 때는 韓國語에 없는 音素를 削除하거나 다른 音素로 代替하거나 했을 것이며, 韓國語로서 자연스러운 音韻構造에 맞춰 수용했을 것이다. 즉 한국어로서의 자연스러운 音韻構造라는 것에는 한국인의 受容意識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의 하나가 1音節 受容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중국어음을 한국어로 表記할 경우에 [毛澤東]을 [마오쩌둥]으로, [靑島]를

* 東國大學校 日本學科 教授

[창따오]로表記하는데, 여기에서 [毛]라는 漢字의 발음 *mao*를 2音節의 [마오]로, [島]라는 漢字의 발음 *dao*를 2音節의 [따오]로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中古音 [毛]의 *mau*와 [島]의 *tau*를 韓國漢字音에서는 1音節의 [모]mo와 [도]to로 수용하였다. 현대의 표기라면 아마도 [毛]의 *mau*는 [마우]로, [島]의 *tau*는 [다우]로 정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mo와 [도]to로 수용된 것은 中古音의 重母音을 1音節로 수용하려는 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의 字音形을 中古音과 비교해서論하거나 그 母胎音을 判別할 경우에는 이러한 1音節化를 통한 變容의 觀點을 배제하고서는 잘못된 해석에 이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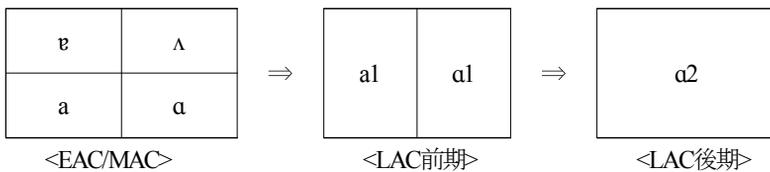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韓國漢字音이 중국어의 原音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용했는지, 이를 1音節 受容이라는 觀點에서 고찰해 가도록 한다.

이하 上古音은 OC로, 中古音은 AC로 약칭하며, 이를 EAC, MAC, LAC로 나누며, 韓國漢字音은 SK, 일본 吳音은 SJG, 일본 漢音은 SJK로 약칭한다).

2. AC 1·2等韻의 體系

AC의 1等韻은 그 核母音이 後舌低位母音인 α 와 後舌中位母音인 Λ 로 이루어져 있으며, 2等韻은 그 核母音이 前舌低位母音인 *a*와 前舌中位母音인 *e*로 이루어져 있다. 1等 重韻을 이루는 α 와 Λ , 2等 重韻을 이루는 *a*와 *e*라는 4母音은 MAC까지 지 그 구별을 유지하다가 LAC 前期에 1等韻은 1等韻끼리 2等韻은 2等韻끼리 合류하였으며, LAC 後期에는 1等韻과 2等韻도 合류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1> AC 1·2等韻 核母音의 變化過程



1) OC는 Old Chinese, AC는 Ancient Chinese, SK는 Sino-Korean,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의 약자에 해당한다. AC는 Early, Middle, Late의 두문자(E·M·L)로 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한다.

위의 표에서처럼 EAC와 MAC에서는 1等の 後舌低位母音 a와 後舌中位母音 ʌ, 2等の 前舌低位母音 a와 前舌中位母音 e라는 4개 母音의 區別이 있었지만, LAC 前期에 이르러 1等 重韻의 합류와 2等 重韻의 합류로 中位와 低位의 區別은 없어지고 前舌母音 a[-low/+front]²⁾와 後舌母音 a[-low/+back]³⁾라는 2개 母音의 區別로 통합되었으며, LAC 後期에는 결국 中位와 低位, 前舌과 後舌의 區別이 없는 하나의 a[-low/-back]라는 母音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1·2等 重韻의 母音이 4개>2개>1개로 통합되는 과정은 어느 나라 漢字音의 母胎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단지 그 漢字音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자국어의 母音體系에 따라서 그 변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하 AC의 1·2等韻에 걸친 韓國漢字音에서의 수용양상을 AC의 音韻構造별로 나누어 AC 및 SJG·SJK와 대조를 통해 SK에 걸친 1音節化의 양상에 대해 고찰해 가도록 한다.

3. [∅·u+a·ʌ·a·e+∅]구조인 韻

<표2> [∅·u+a·ʌ·a·e+∅]구조인 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歌개1	-a	-a	-a2	-a	-a	-a
戈合1	-wa	-wa	-wa2	-wa	-wa	-oa
麻개2	-a	-a	-a2	-e	-a	-a
				-a		
				-ja		
唐개1	-aŋ/k	-aŋ/k	-a2ŋ/k	-au/k	-au/k	-aŋ/k
唐합1	-waŋ/k	-waŋ/k	-wa2ŋ/k	-wau/k	-wau/k	-oaŋ/k
寒개1	-an/t	-an/t	-a2n/t	-an/t	-an/t	-an/l
桓합1	-wan/t	-wan/t	-wa2n/t	-an/t	-an/t	-oan/l
刪개2	-an/t	-an/t	-a2n/t	-en/t	-an/t	-an/l
刪합2	-wan/t	-wan/t	-wa2n/t	-wen/t	-wan/t	-oan/l
山개2	-en/t	-en/t	-a2n/t	-en/t	-an/t	-an/l
山합2	-wen/t	-wen/t	-wa2n/t	-wen/t	-wan/t	-oan/l

2) a1은 e와의 區別이 없는 a[-low/+front]를 의미한다.
 3) a1은 ʌ와의 區別이 없는 a[-low/+back]를 의미하며, a2는 ʌ·a·e와의 區別이 없는 a[-low/-back]를 의미한다.

談개1	-am/p	-am/p	-a2m/p	-am/ϕ	-am/ϕ	-am/p
覃개1	-am/p	-am/p	-a2m/p	-om/ϕ	-am/ϕ	-am/p
				-am/ϕ		
銜개2	-am/p	-am/p	-a2m/p	-em/ϕ	-am/ϕ	-am/p
咸개2	-em/p	-em/p	-a2m/p	-em/ϕ	-am/ϕ	-am/p

위의 표와 같이 核母音과 陽聲·入聲 사이가 ∅인 韻은 그 核母音이 1等の α·Λ와 2等の a·v에 해당한다. EAC와 MAC에서는 1·2等韻의 구별이 존재하여 α·Λ·a·v라는 4母音이 모두 존재하였지만, LAC 前期에 α·Λ가 하나의 母音 a1[-low/+back]로, a·v가 하나의 母音 a1[-low/+front]으로 합류하였으며, 결국 LAC 후기에는 이 4母音이 하나의 a2[-back/-low]로 합류한다.

SK에서는 1等の α를 [아]a로 반영하고 있다.

SK는 1等の Λ도 [아]a로 반영하고 있다. AC 1等の Λ는 中位後舌母音으로, 低位後舌母音 α와 1等 重韻을 이루고 있는데, 低位後舌母音 α에 비해 주로 高位母音에 後接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OC의 어느 한 단계에서 같은 a[-low]이었던 것이 AC에서 低位 a[+low]와 中位 Λ[+high]로 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⁴⁾.

후술하듯이 咍韻을 SK에서 -ei형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면 SK의 [으]는 低位母音 [아]a와 변별되는 中位母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K에서 泰韻을 -ai형으로, 咍韻을 -ei형으로 구별하여 수용한 것은 이 두 韻이 LAC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覃韻의 경우에는 SK에서 談韻과 같은 -am/p형으로 나타난다. 즉 SK에서는 低位母音은 [아]a로, 中位母音은 [으]e로 변별하여 수용했기 때문에, 覃韻의 -am/p형은 LAC의 a2m/p를 수용한 결과가 되며, 覃韻의 SK -am/p형은 LAC를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SJG에서는 核母音을 a 이외에 o로도 반영하고 있는데, Λ가 中位後舌母音이기 때문에 SJG에서는 a로도 o로도 代替하여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覃韻의 核母音을 SK에서 a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연 SK가 LAC를 반영한 결과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SK가 대부분 LAC 이전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즉 한자음의 수용 당시 SK에 아직 [으]e라는 音素가 없었으며, 한자음의 영향으로 [으]e가

4) 李京哲(2018a)에서는 1·2等韻을 중심으로 한 互用의 분석을 통해, MOC(中期 上古音)는 B1, B2, B3, B4와 같이 그 母音體系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B1은 α·u·i의 3母音體系, B2는 α·a·u·i의 4母音體系, B3는 α·Λ·a·v·u·i·i의 7母音體系, B4는 α·Λ·o·a·v·e·u·i·i의 10母音體系라는 가설을 세웠다.
5) 李京哲(2003)에서는 SK와 SJG와의 비교를 통해 SK는 EAC와 MAC를 母胎로 하고 있다고 논하였으며, 그 후의 論도 일관되게 이와 같다.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남는 것이다.

SK에서는 2等の a도 [아]a로 반영하고 있다.

SJG에서 2等の a를 주로 e로 반영한 데 비해, SK는 a와 a를 모두 [아]a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SK의 低位母音 [아]a가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는 [-front/+low]라는 의미가 된다⁶⁾.

SK에서는 2等の e도 [아]a로 반영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SK에서 開口2等の 皆韻은 -ei형과 -iei형으로 반영하여 i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는 [으]e로 반영하고 있는데, 어째서 核母音과 陽聲·入聲 사이가 ∅인 경우에는 [아]a로 수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역시 대부분 LAC 이전을 母胎로 하고 있는 SK에서 山韻과 咸韻만이 LAC를 母胎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자음의 영향으로 [으]e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SK에서 ㅅ음에 해당하는 wa·wa·wa·we 모두 [와]oa로 출현하고 있다. 먼저 wa·we가 [와]oa로 출현하는 것은 SK가 LAC를 母胎로 하고 있을 가능성과 한자음 수용 당시 SK에 [으]e라는 音素가 없었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SK에 [와]oa는 존재하지만, [오·]oe라는 音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SK에서 [으]e는 止攝 諸韻 齒頭·齒上音의 -e형, 開口1等 咍韻과 開口2等の 皆韻 -ei형과 같이 [으]e 단독이나 i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만 출현한다. SK에 [와]oa가 존재하는데, [오·]oe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으]e가 音韻體系上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SK에서 [아]a의 ㅅ음은 [와]oa로 출현하는데, [어]e의 ㅅ음이 [워]uo로 출현하는 것과 견주어 보면 母音調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여기에서 [으]e에 해당하는 ㅅ음 [오·]oe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w+a·a·a·e+∅]는 SK에서 [와]oa로만 출현하게 된다.

4. [∅+a·a·a+u]구조인 韻

<표3> [∅+a·a·a+u]구조인 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豪개1	-au	-au	-a2u	-au	-au	-o
模개1	-au	-o	-o	-u	-o	-o
				-o		
侯개1	-əu	-əu	-əu	-u	-u	-ou
肴개2	-au	-au	-a2u	-eu	-au	-jo

6) 한편 SJK에서 a와 a를 모두 ㅍ/a로 반영한 것은 SJK가 LAC를 母胎로 하기 때문이다.

冬개1	-auŋ/k	-auŋ/k	-oŋ/k	-ou/k	-ou/k	-oŋ/k
東개1	-auŋ/k	-auŋ/k	-oŋ/k	-(u)u	-ou/k	-oŋ/k
				-ou/k		
江개2	-auŋ/k	-aŋ/k	-aŋ/k	-au/k	-au/k	-aŋ/k
				-ou/k		-ək

위의 표와 같이 核母音 뒤가 u인 韻은 그 核母音이 1等の a·ʌ·ɔ와 2等の a에 해당하며, 그 合口韻은 존재하지 않는다. 1等韻에서 核母音 단독으로 이루어진 韻이 歌韻의 a뿐인 점을 고려하면, OC에서 au>ʌu>əu나 ai>ʌi>əi라는 高位化과정을 거쳐 ʌ가 성립되고 그 후에 ə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⁷⁾.

SK에서는 1等の au를 [오]o로 반영하고 있다. 開口1等の 豪韻을 SJG와 SJK에서는 2拍의 au로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SK에서 au를 [아우]au로 반영하지 않고 [오]o로 반영한 것은 SK의 수용과정에서 1音節化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開口1等 冬韻 auŋ/k도 1音節化하여 [옹/옥]oŋ/ok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K에서는 1等の ʌ도 [오]o로 반영하고 있다. 開口1等の 模韻을 SK에서는 [오]o로 반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au가 長音化되면 o:, ʌ가 長音化되면 ɔ:가 되는데, SK에서는 ɔ에 해당하는 音素가 없기 때문에 1音節化하여 o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開口1等の 模韻을 SJG에서는 o와 u로 두 가지로 반영하고 있다. 開口1等 東韻 auŋ/k도 1音節化하여 [옹/옥]oŋ/ok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K에서 1等の ə는 [우]u로 반영하고 있다. 開口1等の 侯韻은 SJG와 SK 모두 u로 반영하고 있는데, 核母音 ə도 陰韻尾 u도 모두 高位母音이기 때문에 中舌高位母音 ə가 圓脣後舌高位母音 u에 音像이 묻혀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SJK는 核母音까지 반영하여 2拍의 -ou형으로 반영하고 있다. SK에서는 ə를 1音節化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오]o로 반영하지 않고 [우]u로 반영한 것은 ʌ와 구별되는 高位母音으로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즉 SK에서는 au와 ʌ를 [오]o로, ə를 [우]u로 1音節化하여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K에서는 2等の au를 [요]jo로 반영하고 있다. 開口2等 肴韻은 SJG에서는 -eu형으로, SJK에서는 -au형으로 출현하는데, SJG는 EAC의 au를, SJK는 LAC의 a2u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SK에서 LAC의 a2u를 반영하였다면 [오]o로 반영되었을 텐데, 이것이 [요]jo로 출현하는 것은 SJG에서의 -eu형과 같이 EAC 또는 MAC를 반영한다는 증거가 된다. 여기에서도 SK는 1音節化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7) 李京哲(2018a)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開口2等 江韻 auŋ/k은 SK에서 [양/약]aŋ/ak으로 출현한다. 肴韻에 전주어 본다면 江韻은 SK에서 [용/육]joŋ/k으로 출현해야 하므로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江韻은 SJG에서도 -ou/ku형보다는 대부분 -au/ku형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核母音 뒤의 u가 이미 EAC에서 소멸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미 EAC에서 auŋ/k→aŋ/k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SK는 이 aŋ/k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u·a·ʌ·a·e+i]구조인 韻

<표4> [∅·u·a·ʌ·a·e+i]구조인 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泰개1	-ai	-ai	-ai	-ai	-ai	-ai
泰합1	-wai	-wai	-wai	-wai	-wai	-oi
哈개1	-ʌi	-ʌi	-ai	-ai	-ai	-ei
灰합1	-wʌi	-wʌi	-wai	-wai	-wai	-oi
夫개2	-ai	-ai	-a2i	-ai	-ai	-ai
夫합2	-wai	-wai	-wa2i	-wai	-wai	-oai
佳개2	-ai	-ai	-ai	-ai	-ai	-ai
				-e		-ei
佳합2	-wai	-wai	-wa2i	-a	-a	-a
				-a		-oai
皆개2	-ei	-ei	-a2i	-wai	-wai	-oai
				-wa		-oa
皆합2	-wei	-wei	-wa2i	-wai	-wai	-oi
庚개2	-aiŋ/k	-aiŋ/k	-a2iŋ/k	-jau/k	-au/k	-eiŋ/k
					-ei/ki	-jəŋ/k
庚합2	-waiŋ/k	-waiŋ/k	-wa2iŋ/k	-wau/k	-wau/k	-oiŋ
						-waŋ
耕개2	-eiŋ/k	-eiŋ/k	-a2iŋ/k	-jau/k	-au/k	-eiŋ/k
					-ei/ki	-jəŋ/k
耕합2	-weiŋ/k	-weiŋ/k	-wa2iŋ/k	-wau/k	-wau/k	-oik

위의 표와 같이 核母音 뒤가 i인 韻은 그 核母音이 1等の a·ʌ와 2等の a·e에 해당하며, 그 合口韻을 모두 갖추고 있다. 核母音 뒤가 i인 1等韻에 a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核母音과 u 또는 i의 결합으로 高位化 과정을 거쳐 a가 後代에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開口韻을 보면, SK에서는 1等の ai와 2等の ai를 애/ai/로, 1等の si와 2等の ei를 [으]ei로 반영하고 있어, a와 a를 低位의 [아]a로, ʌ와 e를 中位의 [으]e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核母音이 e인 開口2等 皆韻은 -jɛi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核母音이 a인 開口2等 庚韻은 -ɛiŋ/k형과 -jɛŋ/k형으로 출현하고 있다. a와 a를 [아]a로, ʌ와 e를 [으]e로 구별하여 반영했다는 것은 SK가 LAC 이전을 母胎로 한다는 증거가 되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開口2等 庚韻만은 LAC를 母胎로 한다는 것이 성립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韻이 LAC 이전을 母胎로 하는데, 일부 韻만이 통째로 LAC를 母胎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SK에 [으]e는 止攝 諸韻 齒頭·齒上音의 -ɛ형과 咍韻·皆韻 開口韻의 -ɛi형과 같이 [으]e 단독이 나 i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만 출현하기 때문에 SK의 [으]e가 한자음의 수용과정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SK의 [으]e가 音素로 독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皆韻의 -jɛi형이나 庚韻의 -jɛŋ/k형과 같이 i母音이 들어간 형태로 核母音의 前舌性を 나타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合口韻을 보면, SK에서는 wai·wai·wai·wei를 모두 [외]oi로 반영하고 있다. 단지 合口2等 夫韻에 왜[oai]가 일부 보일 뿐이다. 이는 a·ʌ·a·e를 모두 [아]a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자음 수용 당시 SK에 [아]a와 [으]e의 구별이 존재했다면, wai·wai는 [왜]oai로, wai·wei는 [오으이]oɛi로 구별하여 수용되었어야 한다. 母音調和와 관련하여 본다면 SK에서의 수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 1) 開口 [아]a 合口 [와]oa
- 2) 開口 [어]ɛ 合口 [워]uɛ
- 3) 開口 [애]ai 合口 [왜]oai
- 4) 開口 [에]ɛ 合口 [워]uɛi
- 5) 開口 [으]ei 合口 [오으이]oɛi → [외]oi
- 6) 開口 [의]ɿi 合口 [우의]uɿi → [위]ui

위의 과정과 같이, SK에서 開口 [으]ei의 合口는 [오으이]oɛi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1音節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oi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開口 [의]ɿi의 合口는

[우의]ui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것이 1音節로 성립하지 못하여 [위]ui로 1音節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SK에서는 wai·wai는 [왜]oai가 아닌 [외]oi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역시 [왜]oai가 3母音의 연속으로 인해 1音節로서의 지속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u+ə+i]구조인 韻

<표5> [∅·u+ə+i]구조인 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登개1	-əiŋ/k	-əiŋ/k	-əiŋ/k	-ou/k	-ou/k	-iŋ/k
						-ək
						-eŋ/k
登합1	-wəiŋ/k	-wəiŋ/k	-wəiŋ/k	-wak -ok	-ok	-ok
						-uk
痕개1	-əin/t	-əin/t	-əin/t	-on	-on	-in
						-en
魂개1	-wəin/t	-wəin/t	-wəin/t	-on/t	-on/t	-on/l
				-un		-un

위의 표와 같이 核母音 뒤가 i인 韻은 그 核母音이 ə인 1等韻에만 해당하며, 그 合口韻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ə가 後接하는 高位母音의 영향으로 高位化 과정을 거쳐 後代에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開口韻부터 살펴보자.

開口1等 登韻의 əi는 SK에서 [어]ə·[으]i·[으]e 세 가지로 출현하고 있다. əi는 SK에서 [어]i라는 2音節이 되기 때문에 [어]ə와 [으]i 어느 한쪽을 脫落시키고 어느 한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으]e는 이보다 低位母音에 해당하므로, əi로 高位化하기 이전의 əi를 1音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가장 오래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開口1等 痕韻의 əi도 SK에서 [으]i·[으]e 두 가지로 출현하고 있는데, [으]i는 əi에서 ə를 脫落시키고 1音節로 수용한 것이며, [으]e는 əi에서 i를 脫落시키고 1音節로 수용한 것으로

과악된다. 따라서 [으]e가 오래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합口1等 登韻과 痕韻의 wai는 SK에서 [오]o와 우[u] 두 가지로 출현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begin{aligned} w\ddot{a}i &\Rightarrow [\text{우어으}]u\ddot{a}i \rightarrow [\text{우으}]ui \rightarrow [\text{우}]u \\ w\ddot{a}i &\Rightarrow [\text{오으으}]o\ddot{a}i \rightarrow [\text{오으}]oe \rightarrow [\text{오}]o \end{aligned}$$

즉 SK에서 [우]u로 출현하는 것은 [우으]ui가 2音節이 되기 때문에 [우]u로 1音節化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o로 출현하는 것은 [오으으]u\ddot{a}i에서 [으]i를 脫落시켜도 [오으]oe라는 2音節이 되기 때문에 재차 [으]e를 脫落시켜 1音節의 [오]o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K에서 합口1等 登(德)韻을 -ok형으로, 합口1等 魂韻을 -on/1형로 반영한 것은 그 核母音이 ㅏ인 단계를 반영한 것이며, 합口1等 登(德)韻을 -uk형으로, 합口1等 魂韻을 -un형으로 반영한 것은 그 核母音이 ㅓ인 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7. SK에 대한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

먼저 SK에 걸친 1·2等韻의 반영을 통해 그 母胎를 판별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AC와 SK는 그 母音體系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AC의 1·2等韻에 해당하는 SK의 母音音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야 하며, SK에 해당 音素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音素로 대체할 수 있는가를 통해 그 母胎를 구별해야 한다.

AC 1·2等韻의 核母音이 SK에 반영된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6> 1·2等韻 核母音의 SK 반영

2等	1等		SK의 반영
e	ㅏ	⇒	[으]e
a	ㅓ	⇒	[아]a

위의 표와 같이 SK는 1等 重韻과 2等 重韻을 低位母音이나 中位母音이나에 의해서만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SK의 低中位母音에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SJG에서는 2等韻

을 a 이외에 e로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核母音의 前舌性을 반영한 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K에서는 e라는 單母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으]나 [아]a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SJG에서는 1등의 ㅏ를 a 이외에 o로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ㅏ가 a에 비해 高位母音임을 인식한 표출형으로 볼 수 있다.

河野六郎(1979:455-456)는 SK가 1等韻과 2等韻의 구별이 없는 慧琳音의 字音體系를 반영한 LAC를 母胎로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李京哲(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K에서 1等韻과 2等韻의 구별이 없는 것은 SK에 低中位母音에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며, SK에서 1等 重韻과 2等 重韻의 低位母音은 [아]a로, 中位母音은 [으]e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LAC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다음은 圃隱 鄭夢周의 何如歌로 여기에 朝鮮時代의 字音을 병기해 보았다.

此身死了死了 (츠신스료스료)
 一百番更死了 (일백번갱스료)
 白骨爲塵土 (백골위진토)
 魂魄有也無 (혼백유야무)
 向主一片丹心 (향주일편단심)
 寧有改理與之 (녕유기리여지)

위의 시조는 [6·6/5·5/6·6]의 韻律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하나의 漢字를 하나의 音節로 발음한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二重母音으로 된 字音은 [了료·百白魄魄·更갱·爲위·有유·也야·向향·主주·片편·寧녕·改기·與여]와 같이 진하게 표시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를 2音節로 읽으면 [8·9/7·8/9·10]로 그 韻律이 틀어지게 된다. 따라서 1·2等韻에 나타나는 SK의 [아]a·[으]e·[애]ai·[으]ei·[와]oa·[왜]oai·[외]oi·[오]o·[우]u라는 音節에서 [아]a·[으]e·[오]o·[우]u라는 單母音뿐만 아니라 [애]ai·[으]ei·[와]oa·[왜]oai·[외]oi라는 重母音도 1音節로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왜]oai는 3重母音에 해당하여 1音節로 성립하기에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SK에서 [으]e는 蟹攝 開口2等韻에서 [으]ei로, 梗攝 開口2等韻에서 [잉/익]eij/eik으로, 止攝 諸韻 齒頭·齒上音의 [으]e와 같이 [으]e 단독이나 i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현하고 있다. [아]a는 i母音이 前接하여 [아]ja, o母音이 前接하여 [와]oa가 될 수 있지만, [으]e는 이러한

8) 이는 朴炳采(1971:289-291)가 河野六郎(1968)의 唐代長安音說을 반박하는 주요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母音結合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으]p가 音素로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SK가 대부분 LAC 이전을 母胎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AC의 ㅏ와 ㅑ를 [으]p가 아닌 [어]a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SK의 수용시기에 [으]p가 音素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재차 논의하고자 한다.

AC의 1·2等韻이 SK에 수용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 AC 1·2等韻의 SK에서의 수용 양상

韻尾介音	開口		合口	
	AC	SK	AC	SK
∅	-a	-a	-wa	-oa
	-ㅏ	-a	X	
	-ㅑ	-a	-wa	-oa
	-ㅓ	-a	X	
u	-au	-o	X	
	-ㅜ	-o	X	
	-əu	-u	X	
	-au	-jo	X	
i	-ai	-ai	-wai	-oi
	-ㅑ	-ㅑ	-wai	-oi
	-ㅓ X		X	
	-ai	-ai	-wai	-oi
	-ㅑ	-ㅑ	-wㅑ	-oi
ĩ	-ㅓ	-ㅓ	-wㅓ	-o
	-ㅓ	-ĩ	-wㅓ	-u

위의 표를 통해서 SK의 母音體系를 유추해 보자. 먼저 SK에서 AC의 ㅏ와 ㅑ를 구별하지 못하고 둘 다 [어]a[-front]로 수용한 점으로 보아 低位母音에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SK에서 AC의 ai와 ai는 [에]ai로, ㅑ와 ㅑ는 [으]ei로 구별한 점으로 보아 SK의 [으]p[-front]는 어/a[-front]/ 바로 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C의 ㅓ가 SK에서 [어]p나 [으]i로 1音節化한 점, 그리고 AC의 əu가 SK에서 [우]u로 1音節化

한 점으로 보아 SK에서 [어]ə는 高位母音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C의 ai가 SK에서 [어]ə나 [으]i로 1音節化한 점, 그리고 AC의 3等 乙類 介音 i가 SK에서는 脫落되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⁹⁾으로 보아 SK의 [으]i는 [어]ə보다 高位母音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K에서 合口音의 出現양상을 보면 [와]oa와 [위]ua로 AC의 合口介音 w가 陽聲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는 오[o]로, 陰聲母音이 後接하는 경우에는 우[u]로 나뉜다. 이는 SK의 [아]a가 低位, [으]e가 中位인 것처럼, 오[o]가 우[u]보다 低位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SK의 수용과정에 반영된 古代韓國語의 單母音體系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SK에 반영된 古代韓國語의 單母音體系

[이]i	[으]i	[우]u
	[어]ə	[오]o
	[으]e[-front]	
	[아]a[-front]	

위의 표를 보면 현대 한국어의 單母音體系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아래이[·]의 소멸로 인한 母音推移로 인해 한국어의 母音은 그 調音位置가 변했다고 하는 金完眞(1963)의 母音推移說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에서 아래이[·]의 소멸로 인해 母音의 位置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a의 위치가 약간 上向으로 이동하고, [어]ə의 위치가 약간 下向으로 이동했다는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8. 마치며

지금까지 AC의 1·2等韻이 SK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音節受容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SK에서 3等 乙類는 i가 생략된 형태로, 3等 甲類는 i와 결합된 형태로 出現한다. 필자는 이를 SK가 LAC 이전을 母胎로 한다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李京哲(2012b, 2012c)을 참조하기 바란다.

- 1) AC의 [V∅]는 SK에서 [V∅]로, AC의 [V∅C]는 SK에서 [V∅C]로 출현한다.
- 2) AC의 [Vu]는 SK에서 au·au⇒[오]o, au⇒[요]jo와 같이 結合하며, au⇒[우]u와 같이 脫落하여 1音節化한다.
- 3) AC의 [Vi]는 SK에서 [Vi]로 출현한다.
- 4) AC의 ai는 SK에서 어느 한쪽을 脫落시켜 [어]ə 또는 [으]i로 출현한다.
- 5) AC의 [wV]는 SK에서 母音調和로 [oV]와 [uV]로 나뉜다.
- 6) SK에서 開口 [이]ei의 습기는 [외]oi로, 開口 [의]ii의 습기는 [위]ui로 1音節化한다.
- 7) SK에 반영된 單母音體系는 현대 한국어의 單母音體系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세 한국어에서 母音推移가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参考文献】

고경재(2017)「국어 모음추이의 시기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어학』제75집, 한국어학회, pp.45-74

김선희(2010)「모음체계의 변화와 방언접촉-국어 ‘·’의 소실현상을 중심으로-」『언어학연구』제16집, 한국중원언어학회, pp.47-65

金完鎭(1963)「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震檀學報』제24권, 震檀學會, pp.63-99

김정빈(2007)「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韻表」『일본오음연구』책사랑, pp.371-530

김주원(1992)「14세기 모음추이가설에 대한 검토」『언어학』제14집, 한국언어학회, pp.121-153

김현(2004)「母音推移의 原因과 音韻 資質」『冠岳語文研究』第29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69-187

朴炳采(1971)『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고려대학교 출판부, pp.112-262

宋在漢(2012)『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東國大學校 博士論文, pp.262-339

辛容泰(1982)「韓國漢字音의 母胎에 關する 考察」『人文科學研究』第1輯, 국제대학교, pp.121-153

이기문(1969)「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震檀學報』제32권, 震檀學會, pp.127-146

李京哲(2005)『한일 한자음체계의 비교연구』보고서, pp.105-114, 238-254

_____ (2005)『佛母大孔雀明王經字音研究』책사랑, pp.171-274

_____ (2012a)「韓國漢字音 1·2等 開口韻의 受容 樣相-日本漢字音과의 對照를 중심으로-」『日本言語文化』第22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269-285

_____ (2012b)「한국한자음 양성·입성운의 개구 3등 갑을류 구별 양상-일본한자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第4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491-507

_____ (2012c)「한국한자음 陰聲韻의 開口 3등 갑을류 구별 반영-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東北亞文化研究』第33輯,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269-280

_____ (2014)「韓日漢字音 1·2等 合口韻 受容樣相의 비교 고찰」『日本語文學』第60輯, 韓國日本言文學會, pp.79-95

_____ (2017)「常用漢字表 臻攝韻의 字音 분류」『日本近代學研究』第55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55-68

_____ (2018a)「中古音 多音字의 互用에 관한 고찰-1·2等韻을 중심으로-」『日本學研究』第55輯,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pp.353-384

_____ (2018b)「中古音 多音字의 互用에 관한 고찰-3·4等韻을 중심으로-」『日本學報』第116輯, 韓國日本學會, pp.45-63

李敦柱(1995)『漢字音韻學의 理解』탑출판사, pp.198-202
이준환(2011)「日本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의 音價 考察」『국어학』第61輯, 국어학회, pp.323-358
張榮吉(1993)「국어 모음추이와 모음조화의 붕괴에 대하여」『동악어문학』第18輯, 동악어문학회, pp.45-65
鄭然燦(1989)「十五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와 그것에 딸린 몇 가지 問題」『국어학』第18輯, 국어학회, pp.3-41
伊藤智ゆき(2002)『朝鮮漢字音の研究』東京大学 学位論文, pp.301-309
小倉肇(1995)『日本吳音の研究』新典社, pp.1-737
河野六郎(1968)『朝鮮漢字音研究』天理時報社, pp.535-553
_____ (1979)『河野六郎著作集2』平凡社, pp.295-511
沼本克明(1995)「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日本漢字音史論輯』築島裕<編>汲古書院, pp.160-164
E.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00-103
William. H. Baxter(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pp.61-86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18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3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韓國漢字音의 1音節化 傾向에 대해서

- 1·2等韻을 중심으로 -

李京哲

본 논문에서는 AC의 1·2等韻이 SK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音節受容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AC의 [V∅]는 SK에서 [V∅]로, AC의 [V∅C]는 SK에서 [V∅C]로 출현한다.
- 2) AC의 [Vu]는 SK에서 au·au=키오, au=키요]jo와 같이 結合하며, au=키우]u와 같이 脫落하여 1音節化한다.
- 3) AC의 [Vi]는 SK에서 [Vi]로 출현한다.
- 4) AC의 ai는 SK에서 어느 한쪽을 脫落시켜 [어]o 또는 [으]o로 출현한다.
- 5) AC의 [wV]는 SK에서 母音調和로 [oV]와 [uV]로 나뉜다.
- 6) SK에서 開口 [의]i의 습기는 [외]oi로, 開口 [의]i의 습기는 [위]ui로 1音節化한다.
- 7) SK에 반영된 單母音體系는 현대 한국어의 單母音體系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세 한국어에서 母音推移가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On the Changing to One Syllable in Sino-Korean

- mainly on the First and Second Rhymes -

Lee, Kyong-Chul

In this paper, I researched how first rhymes and second rhymes reflected to Sino-Korean mainly focused on the changing to one syllable.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V∅/ structure in Ancient Chinese was reflected /V∅/ in Sino-Korean and the /V∅C/ in Ancient Chinese was reflected /V∅C/ in Sino-Korean.
- 2) In the /Vu/ structure of Ancient Chinese, The /au/ and /au/ was changed to one syllable /o/ and the /au/ was changed to one syllable /jo/ in Sino-Korean.
- 3) The /Vi/ structure in Ancient Chinese was reflected /Vi/ in Sino-Korean.
- 4) The /ai/ in Ancient Chinese was changed to one syllable /ə/ or /i/ in Sino-Korean.
- 5) The /wV/ in Ancient Chinese was changed to /oV/ or /uV/ in Sino-Korean by vowel harmony.
- 6) The open syllable /ei/ became to /oi/ on closed syllable and the open syllable /ii/ became to /ui/ on closed syllable in Sino-Korean.
- 7) The vowel shift do not occurred in Middle Korean because vowel structure of Sino-Korea is not different with vowel structure of Modern Korean.